

# 교사 상대 폭언·폭력,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우려 수준 넘어섰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사를 상대로 한 어떠한 폭언·폭력 행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들어 교원을 상대로 폭언·폭력 행위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들은 어떤 경우든 폭언 또는 폭력에 노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교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피해 교원이 가해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의 의견을 존중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교원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을 갖도록 분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 대책에 후속적으로 누리예산을 받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

했다. 김 교육감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조그마한 반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학교안전팀에서는 이미 단위 학교에 안전 매뉴얼을 배포했다”면서 “이 매뉴얼이 ‘케비닛 매뉴얼’이 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수업시간에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여당이 최근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을 비난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지난 9월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 논평을 통해 3개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누리예산을 받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



저를 주장하면서, “‘에스칭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 대해 김 교육감은 “‘악속은 내가 할 게, 책임은 내가 지라’라는 식으로 돌아돌이면서 시도교육감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3개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을 경고한 데 대해서는 “정부금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도교육청 대입 수시 대면상담 큰 폭 증가

지난해 대비 353건 증가...총 639건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입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 운영 결과 상담 건수가 639건으로 지난해 대비 35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입 수시진행에 대비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무주 등 7개 지역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총 639건의 대면 진학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6건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면상담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3%로 상담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384명의 응답자 중 “매우 만족한다”가 58% (229명), “만족한다”가 34% (131명) 등 “만족” 이상이 9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안내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였으며, 대면 상담실의 확대 및 활성화와 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비롯해 입시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교사와 대입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며 특히 소수자 대상 특별전형 연구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시 대면 진학상담은 1일 최대 상담교사 수를 전년도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으며, 최대 16명으로 운영해 대입 수시 지원 전략과 지원 가능대학 정보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수시 대면상담을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입시정보소외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야간(평일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주말(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운영을 통해 학생들과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상담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 미래 기술인재 능력 뽐내다

전북도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금1, 은2, 동5, 우수5입상

전라북도교육청은 서울에서 열린 제5회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5, 우수상 5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은4, 동5, 우수2) 학교별 입상 현황은 전주공고(금1, 은1, 동1), 전북기계공고(은1, 동1, 우수2), 군산기계공고(동1), 한국계일과학고(동1), 영산고(동1), 남원용성고(우수1), 전주중명과학고(우수1), 줄포자동차공고(우수1)이다.

금메달은 자동차차체수리職種에서 전주공고 김민수 학생이 입상했으며, 은메달은 자동차차체수리職種 전주공고 임관빈, 금형직종 전북기계공고 정기용 학생이 입상했다.

한편 전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2, 은2, 동9, 우수상 7명이 입상해 지난해 11위보다 1계단 오른 종합순위 19위를 차지했다.

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도내 19개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 일반인 등 110명이 37개 직종에 참가했다.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서 1,916명의 선수가 출전해 폴리메카닉 등 49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1위 입상자는 삼금과 고용노동부장관상, 2위와 3위는 삼금 및 대회회장을 받았다.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됐다.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

#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전 서기관 임용

전라북도교육청이 개방형직위인 정책공보담당관 공모를 통해 이승일 전 서기관을 선발했다.

정책공보담당관은 전북도교육청핵심사업 및 조정, 교육정책 개발 및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안전 정책 총괄, 교육정책 홍보, 학부모지원 사업 총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식인 정책공보담당관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에 나섰다. 선발 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임용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승일 전 서기관의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승일 신임 정책공보담당관은 1979년에 교육행정직에 합격하여, 2005년 사무관 승진, 2012년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올해 6월 말 퇴직했으며 교육행정공무원으로 36년 7월을 근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개발 등의 임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수한 우리 한지 문화 확산 기대

전북교육청, 대승한지마을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내 학생들이 한지 생산과 한지 공예품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 오전 본청 5층 집견실에서 학생 진로직업 체험 및 한지문화 확산을 위해 대승한지마을(관장 이명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지마을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전북의 한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세부 협약 사항으로 학생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한지 생산과 제작 체험처 제공, 한지 문화 체험 및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와 한지 문화 확산 노력 등이 있다.

대승한지마을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고려지(紙)의 원산지로서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한지체험관, 한지생활사전시관과 승지관, 동양산업조합과 줄포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한옥체험관에서 한지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1박2일의 프로그램 등이 있어 복합 문화공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위 학교의 다양한 진로직업 현장체험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학생 체험활동과 교원들의 직무연수 지원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한지문화 확산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4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개 모집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기 전북학생참여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생인권 실천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초·중·1학년~고2학년을 대상으로 제4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임기는 10월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10명은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견 ▲학생인권실천태도조사 의견 학생인권실천계획 의견 ▲학생 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등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된다.

2년 이상 학생참여위원으로 활동했거나 201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번 달 23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응시자가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재민 기자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 아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현장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주최회사 **세히테크** 대표이사 이 지 연  
010-5488-2617  
sp@sehitex.com  
192-6292-9817  
192-6292-9817